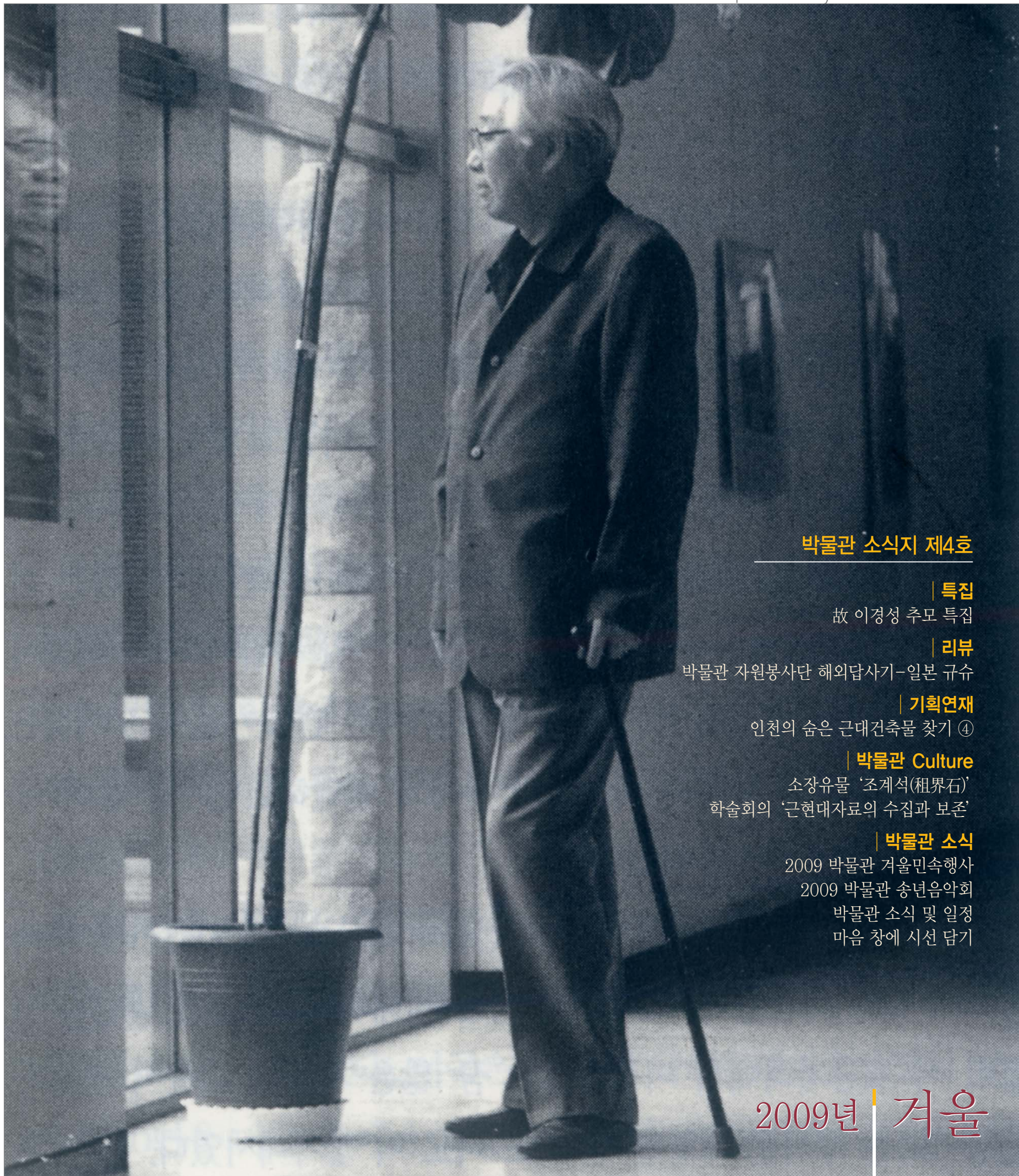




인천광역시립박물관
Incheon Metropolitan City Museum

박물관풍경 風景

Incheon Metropolitan City Museum Newsletter



박물관 소식지 제4호

| 특집

故 이경성 추모 특집

| 리뷰

박물관 자원봉사단 해외답사기-일본 규슈

| 기획연재

인천의 숨은 근대건축물 찾기 ④

| 박물관 Culture

소장유물 '조계석(租界石)'

학술회의 '근현대자료의 수집과 보존'

| 박물관 소식

2009 박물관 겨울민속행사

2009 박물관 송년음악회

박물관 소식 및 일정

마음 창에 시선 담기

2009년 | 겨울

석남을 떠나보내며

지난 11월 27일 인천시립박물관 초대관장이자 국립현대미술관장을 역임하셨던 석남 이경성 선생께서 미국 뉴저지에서 타계하셨다. 향년 91세였다. 이에 박물관에서는 박물관과 미술기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활동을 전개하신 석남 선생을 지면을 통해서나마 추모하고자 한다. 미술인으로서의 석남, 인천 문화계에서의 석남, 초대 인천시립박물관장 석남을 기억해 본다.



우리 시대의 ‘마지막 로맨티스트’이자 ‘문화행정가’로 그리고 한국근현대미술사의 기초를 닦은 ‘한국 최초의 미술평론가’ 석남 이경성 선생이 우리 곁을 떠났다. 하지만 그의 이름 앞에 ‘최초’ 또는 ‘장수’라는 수식어가 몇 개나 더 필요한지 모를 지경인 석남의 체취와 족적은 미술동네 아니 문화계에 여전히 남아있다. 아니 그 향기와 업적은 더욱 빛을 발할 것이다. 가히 근대적인 의미에서 한국미술의 근간을 이룬 그의 활동과 연구 성과는 이제 그의 후학들의 가열 찬 노력으로 더욱 유의미한 성과들을 나올 터이기 때문이다.

이런 거목을 알고 만나면서 그의 학문적 성과는 물론 그의 후덕한 인품과 넉넉한 마음을 곁에서 보고 배울 수 있었다는 것은 큰 광영이 아닐 수 없다. 그의 많은 제자들 가운데 필자도 그런 음덕을 입은 사람 중 하나이다.

필자가 처음으로 석남을 뵈는 것은 인천시립박물관에서이다. 초등학교 시절 아버지를 따라 우연히 들른 자유공원의 인천시립박물관에서 선생을 처음 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즈음 그가 홍익대학교에 재직할 시기인데 그를 인천시립박물관에서 만나게 된 것도 희한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것을 두고 불가에서 말하는 인연이라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아마도 당신이 설립하다시피 한 인천시립박물관에 자주 들르셨던 길이 아닐까 추측해 볼 따름이다.

아무튼 그 당시 어린 필자의 눈에 비친 그는 당시로서는 보기 드문 40대의 크고 멋진 신사였다. 그는 처음 보는 꼬마를 이끌고 크지 않은 박물관이었지만 이곳 저곳을 데리고 다니면서 유물들을 보여주고 친히 설명까지 해 주셨다. 지금 기억에 남는 것은 토기와 코끼리 이빨이라고 말씀해 주신 상아뿐이지만.

이렇게 시작된 인연이지만 그 후 대학원에 진학하면서 다시 선생님을 뵈게 되었다. 그 후 위커힐미술관을 거쳐 국립현대미술관장 시절 그리고 소계초미술관 명예관장으로 일하시던 선생은 동향의 문신규가 설립하고 필자가 일하던 토탈미술관에 고문역으로 매주 두 번씩 나오셨고 미술관이란 무엇 이러해야한다는 원칙을 일러주셨다. 자상하고 인자하신

문화의 씨앗 뿌린 개척자

새얼문화재단이 발행하는 계간지 ‘황해문화’에는 한때 ‘원로를 찾아서’라는 특집이 있었다. 초기 편집위원의 한 사람이었던 필자는 1994년 5월 6일 오후 서울 인사동 소재 석남미술재단으로 석남 선생을 찾아가 이런저런 말씀을 듣고 그 내용을 ‘황해문화’ 제3호에 게재했다.

“제가 동경에서 공부할 적에 고유섭 선생님의 처남인 박상래도 같이 있었어요. 나이 차이가 있었기에 저는 당시 개성부립박물관장으로 계셨던 동향 선배이신 고유섭 선생님을 직접 뵈지는 못했고, 그 사람을 통해 편지를 주고받았어요. 고유섭 선생님 말씀이 우리나라에도 박물관인이 필요하시다는 것이었어요. 그때 저는 큰 감화를 받고 저도 박물관을 해야겠다고 작정했어요.”

광복이 되자, 석남 선생은 박물관을 하기로 단단

히 마음먹고, 인천의 군정관 험벨트의 소개로 김재원 국립박물관장 등을 만나 몇 달간 국립박물관에서 일했다. 그러던 어느 날 선생의 꿈이 무엇인 줄 알고 있던 군정관 험벨트는 선생에게 연락, 서로 시립박물관 창설에 합의해 1945년 10월 31일 임흥재 시장으로부터 관장 발령을 받았다.

연세 스물일곱에 우리나라 최초의 시립박물관을 세웠던 것이니 지금 생각해도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선생은 그에 그치지 않고 옛 영국 영사관 자리(지금의 파라다이스 호텔)에 예술의 전당쯤 되는 ‘우리예술관’을 세운 개척자이기도 했다. 또 경서동 녹청자도요지 발굴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말하자면 선생은 총체적인 인문학의 사도(使徒)였던 것이다.

‘우리예술관’은 집필실, 음악실, 무대를 갖추어

공연을 했는가 하면, 당대 최고의 화가인 김환기 화백 전시회를 여는 등 인천의 문화예술 진흥에 쏟은 그 열정은 대단했다. 공인된 것은 아니나 최순우 선생에 의하면 ‘우리예술관’이 국내 최초로 현대미술을 상설 전시한 공간이라는 것과 녹청자 발굴 등은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대목인 것이다.

그렇듯 인천은 문화예술에 관한 한 전국 어느 지역보다도 앞서 나갔던 선구지였는데, 그 씨앗을 뿌린 이가 석남 선생이었던 것이다. 더구나 선생이 1964년 우현 고유섭 30주기를 맞아 추모비를 세우는 데 앞장섰는데 그 정신을 이어 이제 새얼문화재단을 중심으로 한 후배와 후학들이 선생의 인간과 예술을 기려 흉상을 세우기로 했다는 것은 매우 기쁘고 뜻 깊은 일이라 생각한다.

시인, 인천시 시사편찬위원 조우성



1. 이경성, 〈사람2〉, 2006, 83.5×71.4cm
2. 인천박물관장 시절의 이경성

얼굴로 언제나 세세하게 질문에 답해주시던 선생의 가르침은 필자의 이후 광주비엔날레와 국립현대미술관을 거치는 중에 그리고 지금까지 일과 삶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평생을 공직과 교직 그리고 미술동네 최전선에서 ‘소리 없이 세상을 움직였던’ 그에게 사생활이란 없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알고 함께했다. 하지만 1919년 인천에서 태어나 와세다 대학에서 법학과 미술사를 공부했던 그에게 큰 스승이 있었다. 다름 아닌 우현 고유섭이다. 당시 개성부립 박물관장으로 일하던 우현은 석남에게 조상들의 귀하고 아름다운 유물을 수집하고 보존하고 연구하는 박물관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다. 그의 이런 가르침은 인천시립박물관의 초석이 되어 1946년 대한민국 최초의 지방 공립박물관의 역사를 오늘의 인천광역시립박물관으로 구체화하는 동력이 되어주었다. 그후 이화여자대학교와 홍익대학교 교수, 국립현대미술관과 위키힐미술관장, 소계츠미술관 명예관장, 호암미술관, 토탈미술관, 모란미술관의 고문과 자문역을 거치면서 한국을 대표하는

미술관 거개가 그의 뮤지올로지와 철학의 그늘에 들게 했다.

여기에 와세다에서 아이즈 야이치 선생을 사사하면서 “너의 나라 미술은 너희 나라 사람이 연구하고 개발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들어 미술비평가로 미술사학자로 한국근현대미술사의 초석을 세우는 동기가 되었다. 그의 이런 지적은 석남으로 하여금 단순한 비평가로서의 면모를 넘어서 미술학자로서 미술사학자로서 자신의 관점과 미학을 근간으로 많은 역저를 남기도록 했다. 1961년 첫 저작인 『미술입문』을 시작으로 23권의 저서를 남겼다. 그의 저서는 미술비평과 미술사 그리고 미술입문서에 걸쳐 있지만 한편으로는 문화와 예술 그리고 원로로서 삶의 지혜를 일러주는 수필에 이르기까지 실로 전 방위적인 만능인인 석남만이 이룰 수 있는 일이었다.

이렇게 거의 매년 역저를 내놓았지만 어느 것 하나 허투루 쓴 것이 없어 그의 저서는 오늘날까지도 한국근현대미술사의 중심을 이루어 아직 그를 넘는 논문들이 나오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석남이라는 산이 너무도 높은 탓이기도 하거니와 필자를 비롯한 그 후학들의 게으름 때문일 것이다.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제라도 분발하고 노력해서 그를 넘는, 그가 놓치거나 미처 이루지 못한 한국미술사의 근간을 메우려는 노력을 할 때 진정 그를 스승이라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석남이 영면에 들기 꼭 일 년 전 동학인 조은정, 최열, 최태만과 김달진 부부 그리고 필자는 뉴저지 따님 댁을 찾아 어렵게 선생을 뵈을 기회를 가졌다. 이역만리 선생을 뵈러 떠난 우리를 조금 쇠잔한 모습이셨지만 여전한 미소와 후덕함으로 맞아 주셨고 저녁을 함께 나누었다. 하지만 우리는 아무도 몰랐다. 그날 그 자리가 석남을 뵈는 마지막이 될 줄은.

그리고 꼭 일 년 뒤 우리는 저 세상에 가 계신 석남을 만나야만 했다. 팔과 사위의 손에 들린 유골로 고국에 돌아오신 모습으로 말이다. 많은 이들이 그의 부음에 슬픔을 감추지 못했고 눈물로 그를 보내지 않을 수 없었다.

마감시간을 넘긴 이 글을 쓰면서도 떠오르는 선생님의 한 말씀, “돈 빛은 빌려서라도 갚을 수 있지만 글 빛은 쓰는 외에 도리가 없다.”던 그 말씀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사소하지만 무게 있는 그의 가르침에 새삼 그를 되새기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이제 스스로 ‘마지막 직장’이라며 매주 나오시던 모란미술관이 내려다보이는 모란공원의 따스한 양지 녘에 누우셨다. 하지만 찬바람이 혹여 그를 괴롭히지나 않을까. 오늘같이 바람 찬 날이면 그에게 따스한 솜이불이 되어 줄 함박눈이라도 내려주었으면 기도해본다.

국민대학교 초빙교수 정준모

우현 마당에서...

선생님께서 떠나신지 벌써 한달이 다 되어 갑니다. 미국으로 배달되는 박물관 소식지의 기사를 꼼꼼히 챙겨보셨다는 가족들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소식지의 면을 빌어 편지를 드립니다.

3년 전이었나요? 서울 평창동에 계시던 선생님을 찾아뵈었을 때였습니다.

마침 WBC세계야구대회 한-일전이 벌어지고 있었지요. 언제나 조용하고 고즈넉하던 병실 복도로 천진난만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도 우리나라 선수가 역전홈런을 쳤었나봅니다. 막 병실로 들어선 제게 “우리가 이겼어~~”라며 함박웃음을 지어주시던 선생님...

그해 여름

박물관이 리모델링을 마치고 막 개관했을 때였습니다. 휠체어에 의지하신 채 박물관을 돌아보시던 선생님께서는 연신 허허거리시며 “우리 박물관이 국립박물관 보다 훨씬 나아~~”라고 하셨지요. 미수의 나이에도 어느 젊은이보다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박물관 구석구석을 둘러보셨습니다.

도서실을 꾸미고 나서 벽면이 허전하다는 말을 들으시고는 선뜻 선생님의 그림을 주시면서 걸어보라고 하셨지요... 그러고는 선생님께서 늘 곁에 두셨던 ‘石南書室’의 현판을 건네주셨습니다. 그 때 선생님께 약속드렸지요. 언젠가는 선생님의 그림을 모아 전시하는 공간을 마련하여 그 곳에 저 현판을 걸겠다고 말입니다. 내년이면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내년에 귀

국하실 예정이었다는 가족들의 말씀을 전해 듣고서 가슴이 저며 왔습니다.

선생님을 가까이서 모셔본 적도 없습니다.

선생님께 공부를 배워본 적도 없습니다.

명예관장으로 계실 적에 일년에 두어번 뵈었던 것, 미국에서 돌아오신 후 평창동으로 서너번 찾아뵈었던 것, 리모델링이 끝나고 박물관으로 몇 번 모셨던 것이 선생님과의 짧은 인연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선생님의 장난 가득한 웃음과 말투가 그리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일은 아침 일찍 3층 복도에 계시는 선생님을 뵈러 가야할 것 같습니다.

전시교육과장 배성수

박물관 자원봉사단 해외답사기

일본 규슈지역 답사를 다녀와서

하늘이 유난히 높고 바람소리 청명한 가을의 한가운데 짙, 아주 특별한 여행을 했다. 연대기로 따지자면 서기 2009년의 10월 16일 아침 6시 30분부터였다. 전날 부평에서 열린 모 백일장의 심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3박 4일 여행의 짐을 싸기 시작했다. 3박 4일이긴 하나 비행기로 한 시간만 가면 되는 곳이니 4박 5일의 일정이었다.

가깝고도 먼 나라. 바로 옆에 있는 이웃이지만 늘 견제하고 이겨야만 하는 나라. 안전의 몽유도 원도를 국보로 정해놓고 9일만 빌려주겠다고 한 나라. 우리의 문화와 경제를 용의주도하고 치밀하게 자신들의 것으로 만든 나라. 긍정의 의미보다는 부정의 의미가 더 많이 각인되었던 일본을 가게 된 것이다.

비행기가 이륙하여 구름 위로 가뿐히 올라선다. 흰 솜털 속의 창공은 푸르고 투명하다. 어느새 해변을 끼고 있는 규슈공항에 도착했다. 바다를 매립해서 만든 곳이라고 한다. 자연을 인간의 곁으로 끌어들이어 이용하고 하나가 되는 것. 아마 인류가 시작된 시점에서부터 사라질 때까지 지속될 테마이리라. 하지만 자연을 인간의 입장에서 이용하느냐, 자연의 측면에서 사용하느냐가 사람과 자연의 품격을 만들 터이다. 공항은 바다와 활주로와 사람들을 하나로 만든 느낌이다. 화려하거나 거창

하지 않으나 보이지 않는 규율이 느껴진다.

기타큐슈는 일본 열도의 가장 남서쪽에 위치하여 고대와 근대시대에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는 역할을 한 근대초기의 개항지이자 공업도시이다. 최근에는 인천시와 자매결연을 하고 왕래가 잦아지고 있는 시점이다. 왕래가 잦다는 것은 상대를 알고 받아들이기 위해 걸음을 내딛는다는 뜻일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인천시립박물관과 기타큐슈박물관 자원봉사자들의 교류행사는 두 나라와 두 박물관,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큰 의미를 주는 일이다. 만남이 시작돼야 생활과 문화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서로 간의 입장이나 견해에 대한 이해가 싹틀 것이기 때문이다.

기타큐슈시립자연사역사박물관이 우리의 첫 행선지이다. 뼈대를 이어서 복원해 놓은 커다란 공룡이 눈에 띈다. 그들이 헤치고 다녔을 숲과 나무의 모습을 상상해본다. 바람 가르는 소리, 눈을 두

리번거리는 모습이 선명하다. 수억 만 년을 뛰어넘어 온 것은 공룡뿐만이 아니다. 특별전인 <페루의 나스카 문명> 유물들과 슬라이드 영화로 나스카 라인을 감상하니, 문명의 불가사의가 시공을 넘나들며 감탄과 경이로움을 준다.

오후에는 기타큐슈시립자연사역사박물관 자원봉사자들과 인천시립박물관 자원봉사자들의 교류행사 시간을 가졌다. 환영사와 답사가 오간 후 만난 시간을 맞는다. 일본의 아사히 맥주와 사케, 우리가 가져간 막걸리, 음료와 초밥과 여러 맛있는 음식이 눈과 마음을 즐겁게 한다. 먹고 마시며 환담을 나누는 동안 일행인 선생님들과 일본 자원봉사자 선생님이 섞여 대장금의 주제곡을 함께 부른다. 처음 만난 사이지만 노래 하나로 하나가 될 수 있음은 누군가를 위해 흔쾌히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을 지녔기 때문이리라.

둘째 날은 시립미술관 견학으로 시작되었다. 개관 35주년 기념 <석산사의 美> 특별전이 열리는 미술관은 시립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웅장함과 견고함이 느껴진다. 무라사키라는 궁녀가 머물렀다는 전설을 가진 석산사는 불교미술뿐만 아니라 문학적으로도 상당한 가치가 있는 절이다. 이시야마(석산사)의 그림들은 헤이안시대부터 근래의 색채가 화려하면서도 성에 대한 다채로운 표현이





1. 기타큐슈시립자연사역사박물관 내 전시실
2. 자원봉사자 간 교류의 밤 행사
3. 규슈철도기념관
4. 야마모토 치에코상
5. 규슈국립박물관과 인천시립박물관 자원봉사단
6. 요시노가리 유적의 발굴 당시 모습

돌보인다. 야마토에(일본화)를 접할 수 있는 귀한 기회이다.

관람을 마치고 큐레이터들과 만남시간이다. 미술관이 창립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자원봉사의 나이는 35세가 되는 셈이다. 이제 10기 선생님들을 신입으로 받은 인천시립박물관의 자원봉사 나이는 그에 비해 새파란 청춘이랄까.

박물관에서의 자원봉사는 나를 돌아보게 해준다. 알팍했던 지식이 조금씩 체계화 되며 깊이를 더해갈 때 봉사라기보다는 나를 위해 시간을 투자하는 형국이다. 그곳에서 봉사를 하는 선생님도 같은 생각인가 보다. 관람객이 모르던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며 감사를 표할 때, 자신의 짧은 지식에 새로운 지식이 보태어지며 유연한 설명을 할 때 보람을 느낀다며 젊고 예쁜 선생은 환하게 웃는다. 버스기사인 미요시 상이 기다리고 있는 주차장으로 오는데 꽃나무가 눈에 띈다.

10월에 꽃을 피운다 하여 이름이 ‘시월애’인 벚나무이다. 참 철도 없다. 따뜻한 봄날 무리를 지어 피었으면 좋았을 것을. 뭉게구름이 피어오르듯, 팝콘이 튀겨지듯 아련함과 흥겨움의 축제였을 텐데. 주변의 꽃들이 모두 지고 난 후 홀로 꽃을 피우고 있으니 말이다.

10월의 사랑이어서 외로운 것인가, 철 지난 사랑이어서 쓸쓸한 것인가. 하지만 외롭고 쓸쓸하면 어떨리. ‘시월애’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아름다운 연분홍 꽃을 피워내길 응원한다.

셋째 날, 요시노가리 유적지를 관람한 후 규슈국립박물관에 도착했다. 자원봉사자 분들도 10명가량 우리를 환영해준다. 400여명이 <시민과 함께 만드는 박물관>이란 슬로건으로 활동 중이었는데 마침 일요일이어서 모두 고분답사를 갔다고 한다. 재미가 없으면 박물관이 아니라는 소신으로 더욱

신나고 재미있는 박물관이 되기 위해 노력한다는 이분들의 표정은 밝고 따뜻하다.

따뜻한 미소를 가진 야마모토 치에코 상이 우리를 안내한 곳은 유물들을 전시, 공개하기 전에 보존하고 복원하는 수장고이다. 내부가 보이는 창을 설치한 곳은 파리의 루브르박물관과 이곳 뿐이라 한다. 치에코 상의 한국어 발음은 정확하면서도 절도가 느껴진다. 수장고에는 전시유물의 3배가 넘는 유물이 보관되어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유물도 일부분을 차지할 것을 생각하니 씁쓸하다. 누구의 것이건 유물이 이런 좋은 환경에서 보존되고 있다는 것은 지구의 끊임없는 생성과 멸종의 시각으로 보면 다행한 일인지도 모르지만.

학문의 신을 모신 천만궁은 6,000여 그루의 매화나무로 둘러싸여 있다. 매화꽃이 절정인 2, 3월에는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찾아와 꽃과 향기를 즐긴다고 한다. 천만궁의 시조는 미치자네라는 관리이다. 그는 본토에서 좌천이 되고 뒤뜰의 매화나무에게 시를 지어주었다.

‘주인이 없어도 봄을 잊지 마라. 꽃을 피워 봄의 향기를 멀리까지 보내다오.’

매화는 봄을 잊지도 주인을 잊지도 않았나 보다. 꽃을 피운 매화나무가지가 하룻밤 새에 주인이 있는 곳까지 날아왔다니. 더구나 6,000 그루의 매화나무 중 가장 먼저 꽃을 피워 봄을 알린다고 한다. 사군자의 하나로 지조와 절개를 가진 매화에 부지런함이 하나 더 느는 듯하다.

천만궁은 시험에 합격하기를 바라는 이들이 찾는 명소이다. 학문의 신을 배알하기 위한 절차를 치에코 상이 시범을 보여주며 설명한다. 입구에서 약수로 손을 씻고 입을 행구고 신의 앞으로 나간다. 50엔짜리 동전을 소리나게 던진 후 박수를 짹 짹 세 번 친다. 동전소리와 박수소리가 공기를

통과해서 신에게 전달되게 아주 크게 친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부디, 부디, 제발, 제발 하며 손을 모아 고개를 숙인다.

천만궁을 나와 인사동 거리를 연상시키는 거리를 걸었다. 기념품점이 즐비하다. 우리보다 월등히 잘사는 그네들에게 무엇을 살까. 아이쇼핑을 하며 버스를 타러 가는 중이었다. 치에코 상이 천만궁 쪽에서 자전거를 밀며 내려온다. 반갑게 웃음 짓는 그녀가 이제는 친근한 언니같다. 숙녀의 나이를 묻는 것은 실례이지만 넉넉한 웃음에 반해 실례를 무릅썼다. 그녀는 74세이며 쥐띠라고 수줍게 말한다. 나와는 24세의 차이이다.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고 놀라니 치에코 상도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센스 있게 답한다. 그녀는 60세가 되던 해부터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한다. 아이가 없고 남편과 자신은 각자 좋아하는 분야에 최선을 다하고 산다는 그녀의 말 때문인가. 헤어지는 지점에서 자전거를 세우고 손을 흔드는 모습이 조금은 쓸쓸해 보이고 들판에 핀 가을날의 한 떨기 코스모스 같다.

내게 일본은 아직까지 가깝고도 먼 나라이다. 그들이 선의의 감정으로만 보아지지 않는다. 하지만 일본 속으로 들어가 일본인들을 만나니 생각이 많이 바뀐다. 평범하고 진솔한 사람들이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들과 똑같은 사람들이다. 멀리하고 견제하기에는 일본과 일본인들에게서 배울 것이 너무나 많다는. 일본을 진정한 우리의 이웃으로 만들려면 더 치밀하고 꼼꼼하게 준비하고 넓은 시야를 갖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는.

사람과 사람은, 이웃과 이웃은 서로 만나야 이해의 폭이 넓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깨달은 가을날의 여행이다.

소설가, 박물관 자원봉사단 구자인혜

인천의 숨은 근대건축물 찾기 ④ 인천사범학교 본관



인천사범학교 본관(1969년)

개항 이후 인천에는 여러 근대식 교육기관이 설립되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초등교육기관인 영화학교를 비롯하여, 신흥초등학교, 창영초등학교는 물론 인천고등학교와 인천여자고등학교가 생겼고 학교에는 명성만큼이나 멋진 근대건축양식의 교사가 들어섰다. 그렇지만 당시에 세워진 건물은 세월의 무게와 개발압력에 밀려 하나 둘 사라져 지금은 몇 채만 남아있다. 영화초등학교 교사와 창영초등학교 본관 그리고 제물포고등학교 강당은 문화재로 지정되어 보호를 받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건물은 멸실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건물에도 수명이 있는지라 노후되어 사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면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짓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지만, 가치가 있는 건축물까지 남고 비좁다는 이유만으로 철거해 버리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다. 더구나 이러한 비문화적인 일들이 역사와 문화를 교육하는 학교현장에서도 별일 아

닌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시사하는 바는 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러한 일은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일이다. 인하대학교 안에 있던 UNESCO 실습관(1962년, 독일인 설계)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더니, 하와이교민들의 성금으로 설립된 인하공대의 핵심 건물이던 인하공대 기계공학관(1954년, 정인국 설계)마저 교사를 신축하기 위해 흔적도 남기지 않고 철거해버렸다. 두 건물은 모더니즘양식으로 당대의 건축적 특징을 간직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건축비 또한 의미가 깊은 건물이었다.

인천사범학교 역사

인천사범학교는 1946년 개성에서 경기도립개성사범학교로 설립되어 한국전쟁 중 인천으로 옮겨와 1952년 학교이름을 국립인천사범학교로 바꾸고 새롭게 출발했다. 인천에 둥지를 틀었으나, 교

사가 없어 지금의 신흥초등학교와 송의초등학교를 전전해야 했다. 1953년 4월이 되어서야 송의동 203번지에 위치한 24,066㎡ 규모의 대지를 확보하고 같은 해 12월 25일에 6개 교실을 갖춘 목조 단층교사가, 다음 해인 1954년 7월 20일에는 12개 교실을 갖춘 시멘트 벽돌조 단층 교사가 신축되었다. 이에 따라 같은 해 9월 1일 송의초등학교 교사를 빌려 수업하던 시절을 마감하고 송의동 캠퍼스로 옮겨 사범학교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1962년에는 인천교육대학이 되었으며, 이후 2년 학제를 유지하다가 1982년부터 4년제로 승격되었다. 1990년 7월 남구 송의동 캠퍼스를 계양구 계산동으로 옮겼다. 2003년에는 학교명이 경인교육대학교로 변경되었고 2005년에는 경기도 안양시에 경기캠퍼스를 개교하여 현재는 두 개의 캠퍼스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인천사범학교 본관 계단실 천장 몰딩
건물 중앙계단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실 천장 장식으로 요즘에 세워지는 건물에서는 보기 어려운 모서리 몰딩장식이 그대로 남아 있다.



인천사범학교 본관 지붕부

이 건물의 중앙 탑상부는 모임지붕을 올렸고 좌우측 교사 위에는 박공지붕을 설치했다. 이 박공지붕 상단에는 원래 오르간 연습실로 사용되던 공간이 있었다. 이 공간은 김순제 교수가 오르간 연습실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설계변경을 요구하여 만들어진 것이라 한다. 오르간 연습실은 1991년 보수공사 때 철거되어 현재는 흔적만 남아 있다. 초록색 지붕과 만년 사진 중앙의 스자 모양 상부가 오르간 실 지붕이 있었던 곳이다.



인천사범학교 본관(2009년)

건축물의 평면구성은 중앙에 계단실을 두고 좌우에 강의실을 배치하였으며, 옥탑부에는 1층 규모의 오르간 연습실을 두었다. 아울러 현재는 층마다 화장실이 있지만, 원래는 1층 좌우측에 설치된 화장실 두 개가 전부였던 것으로 보인다.

인천사범학교 본관

현재 인천에 남아 있는 대학건물 가운데 가장 오래된 건물은 1957년에 세워진 인천사범학교 본관이다. 이 건물터와 운동장은 다른 곳에 비해 지대가 낮고, 학교가 들어서기 전에는 미나리 밭으로 사용되던 땅이었다. 학교를 세우면서 정지작업을 거쳤으나, 지금도 반 지하층 일부에서는 습기가 많다. 인천사범학교 본관은 1956년 10월 13일 정초식을 거쳐 1957년 6월 30일 완공되어 캠퍼스가 계산동으로 옮겨가기 전까지 교사로 사용되었다. 대학 이전으로 잠시 비어 있다가 1991년 보수공사를 거쳐 1992년 5월 1일부터 현재까지 청소년회관으로 쓰이고 있다. 인천교육대학이 이전한 뒤 다른 건물은 인천광역시 남구청이 입주해 사용하고 있는데, 건물이 노후되어 남구청은 청사신축을 서두르고 있다. 새로 들어설 청사는 기존 건물을 허

물고 지을 예정으로 이에 따라 인천사범학교 본관도 조만간 철거될 가능성이 많다.

이 건물은 반지하 1층, 지상 3층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로 연면적은 3,399㎡이다. 건물 정면의 세로방향은 중앙의 탑상부를 중심으로 좌우에 각각 4개의 베이(bay)를 배치하고, 각 베이는 가는 샷기둥으로 다시 4등분하였다. 참고로 개성사범학교 본관은 건물 중앙의 약간 돌출된 부분을 중심으로 좌우에 각각 3개의 베이를 두고 있었다. 이처럼 중앙부를 돌출시키고 좌우에 교사를 배치하여 전체적인 입면을 대칭으로 구성하는 방법은 일제강점기 이후 학교건축에서 흔히 쓰인 수법이다. 가로방향은 각층 사이에 돌림띠를 둘러 분할하고 각층은 다시 2등분하여 상부에는 고정창을, 하부에는 벽과 미서기창을 설치했다. 수평, 수직방향으로 분할된 정면은 격자형 입면을 형성하여 직선미와

비례미를 연출하도록 했다. 이러한 디자인 방법은 모더니즘 건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다. 한편, 건물본체와 페디먼트 사이에 설치한 가로 돌림띠와 처마선이 모여 멀리서 보면 이중처마처럼 보이기도 한다. 1950년대 학교건축을 대표하는 건물로 모더니즘 양식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건축적 가치도 높다. 건물신축을 위해 허물기보다는 보수공사를 거쳐 사용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며, 제대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등록문화재지정을 추진해야 한다.

재능대학 교수 **손장원**

감사의 글

이번 원고의 내용과 사진은 김순제 교수님(전 인천교육대학교 교수)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연결 브리지와 복도



목포사범학교 본관

등록문화재 제239호로 1954년에 건립된 2층 석조건물이다. 원래는 중앙부 현관을 중심으로 굴뚝이 있는 곳이지만 건물이 있었으며(담쟁이 넝쿨이 있는 부분) 그 가장자리 부분은 나중에 증축한 것이다. 이 건물도 인천사범학교 본관처럼 중앙부를 중심으로 좌우에 4개의 베이로 구성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건축가 조승원 (趙勝元, 1901~1987) - 인천사범학교 본관을 설계한 건축가로 대목(大木) 출신의 마지막 도목(都木)이다. 도목 한성룡(韓成龍)으로부터 대목수업을 받았으며, 1928년부터 근대건축의 설계 및 시공방법을 독학하였다. 이후 평양에서 활동하다가 1940년 서울로 옮겨서 건축활동을 계속했다. 해방 후에는 서울 보성고등학교 본관(석조, 1955년), 인천사범학교 본관과 춘천사범학교 본관 및 도서관(1957년), 서울 보성고등학교 교사(1965년), 서울여자상업학교 본관(1967년) 등의 건축물을 설계했다. 또한 유신시절 밀실정치의 상징처럼 알려진 삼청각을 전통건축양식으로 세웠다. 전통목조건축물에 애착이 많아 『한국목조건축설계원론』을 펴낸 건축가이며, 가수 조영남의 큰 아버지로도 유명하다.

소장유물

조계석(租界石)



조계(租界)는 개항장 내에 외국인 전용 거주지역을 설정하여 그 곳의 지방행정권을 외국인에게 위임한 것을 말하며, 조계석(租界石)은 이러한 조계의 경계를 표시하는 일종의 표지석을 말한다. 인천에는 제물포 일대를 중심으로 일본전관

조계(日本專管租界), 청국전관조계(淸國專管租界), 각국공동조계(各國共同租界) 등 모두 세 구역의 조계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 중 각국공동조계는 1884년 10월 30일 조선과 미국, 영국, 청국, 일본 대표 사이에 체결된 ‘인천제물포각국조계장정(仁

川濟物浦各國租界章程,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재)’을 통해 처음 설정되었으며, 그 후 독일, 러시아, 프랑스가 추가되었다. 위치는 지금의 중구 송학동·송월동·만석동 일대에 약 647,107㎡의 규모로 형성되었으며, 중앙동 일대에 조성되었던 일본조계와 청국조계를 둘러싸고 있었다. 조선의 개항장 중 인천에 유일하게 설정되었던 각국조계는 대략 30년 동안 운영되다가 1914년 일제에 의해 강제 철폐되었다.

이 조계석은 인천광역시 중구 내동 대한성공회 인천성당 입구에 세워져 있던 것을 1980년에 시립박물관으로 이전한 것으로 1990년 11월 9일에는 인천광역시문화재자료 제4호로 지정되었다.

2004년 박물관 증축공사를 실시하기 전까지 시립박물관 야외전시장에 전시되다가 2006년 7월 재개관과 함께 개최된 개관 60주년 기념 특별전 〈도시기행-상하이, 요코하마 그리고 인천〉전에 두 달간 출품·전시되었고, 현재는 유물의 보존을 위해 수장고에서 보관 중이다.

조계석의 재질은 화강암이며 크기는 높이 60cm, 너비 34cm, 두께 14cm로 정면에 各國租界(각국조계), 뒷면과 측면에 朝鮮地界(조선지계)라는 명문이 한자로 음각 되어 있다. 이 명문을 통해 조계석이 서있던 내동 성공회성당 앞 도로를 중심으로 조선과 각국조계 간의 경계가 되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개항기 인천에는 각 조계의 경계를 표시하는 조계석이 다수 건립되었으나 대부분 훼손되었다. 이 조계석 외에 2007년 제물포구락부 스토리텔링 전시관 리모델링 공사 중, 땅속에 매몰된 조계석 1기가 발견되어 시립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데, 전면과 후면에 각각 各國地界(각국지계)와 朝鮮地界(조선지계)가 새겨져 있다. 명문으로 미루어 다른 지점에 세워져 있던 것을 제물포구락부로 옮겨 놓은 것으로 추정되며, 당초 건립된 위치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따라서 처음 발견된 조계석만이 원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하겠다.

전시교육과 김래영

학술회의

근현대자료의 수집과 보존

지난 11월 13일 우리 박물관에서는 ‘근현대자료의 수집과 보존’이란 주제로 여덟 번째 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2003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학술회의의 올해 주제는 문화재청과 국내 박물관 및 일반시민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근현대자료의 수집과 보존’으로 하여 실무자들의 경험과 연구 성과를 토론하는 자리로 계획되었다. 또한 국내에서는 많은 연구

가 진행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활발히 진행될 근현대자료의 활용 분야에 대해서 논의하는 계기가 되고자, 콘텐츠와 디지털복원이라는 분야를 소개하였다. 특히 디지털복원을 통한 문화재 재현과 스토리텔링이라는 생소하지만 흥미있는 주제로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의 박진호 연구원이 특별강연을 하여 각 분야의 전공자와 일반시민의 관심을 끌었다.

수집 실무경험을 토대로 근현대자료의 개념과 수집의 문제점 및 향후과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주었다.

이어서 근현대자료의 보존은 양필승 서울역사박물관 보존처리과장이 서울시 381호 전차의 보존처리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하였고, 근현대자료의 DB 구축과 콘텐츠 활용을 박영환 국가기록원 기록정보화와 연구사가 기록물의 보존과 DB구축 및 콘텐츠의 제공에 대하여 발표했다. 또 근현대자료의 전시활용을 이해런 부산근대역사관 관장이 부산근대역사관의 개관과 상설전시 및 특별전시 등을 보여줌으로써 발표를 마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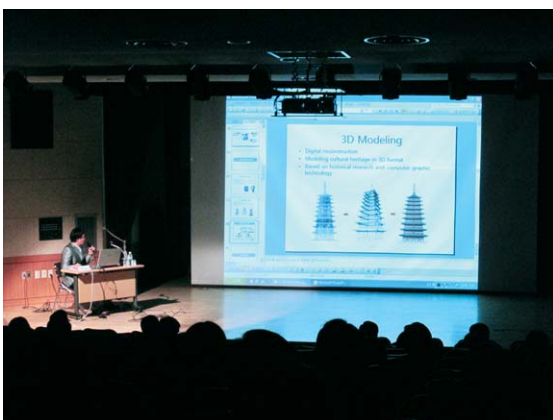
종합토론은 각 주제에 대한 토론자들의 질의와 발표자 응답을 통해 학술회의 내용의 이해를 돕고자 임학성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교수의 사회로 각 분야의 실무종사자와 전공자를 모시고 토론



을 하였다. 이 시간에는 각 박물관의 근현대자료 수집 방침에 대한 의견을 논의하고 각자의 분야를 접목하는 방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응답이 이어졌으며, 부산근대역사관 개관과 관련한 비하인드스토리를 통한 실무자 간 업무교류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일반 참가자 질의에서는 국립민속박물관의 근현대자료 수집 및 전시에 대한 디지털복원 접목으로의 가능성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올해 학술회의는 개화의 도시 인천의 박물관에서 주관한 것답게 근대와 관련있는 주제로 하여 박물관 학술회의가 다시 한번 대내외로 자리매김하는 자리가 되었으며 내년에도 관련종사자 및 전공자, 일반시민에게 내실있는 토론의 장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유물관리과 허윤현



학술회의의 주제는 크게 수집, 보존, 활용으로 나누어 주제발표가 있었는데, 활용은 콘텐츠 활용과 전시활용을 구분하여 발표하였다. 첫 번째 주제로 근현대자료의 수집은 김호걸 국립민속박물관 유물과 학과 학예연구사가 국립민속박물관의 근현대자료

2009 박물관 겨울민속행사

동짓날, 팔죽 먹고 달력 만들고



동지는 24절기의 스물두 번째 절기로, 일년 중에서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이다. 동지는 양력 12월 22일경에 해당하는데, 『동국세시기』에 의하면, 동지를 '아세(亞歲)'라 했고, 민간에서는 흔히 '작은 설'이라 하였다고 한다. 동지를 기준으로 차츰 밤이 짧아지고 낮이 길어져 태양의 부활을 뜻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 설 다음 가는 작은 설의 대접을 받은 것이다. 옛 말에 "동지를 지나야 한살 더 먹는다."라고 하여 동지를 주요 절기로 여겼으나 현대에는 그 의미가 점차 사라져가고 있다.

인천시립박물관에서는 이러한 동지를 맞이하여 동지 민속행사를 개최한다. 동지 민속행사는 2009년 세 번째로 개최되는 민속행사이다. 박물관에서는 지난 2월 <정월대보름맞이 민속놀이 한마당>을 진행하였고, 지난 7월에는 <우리 민속을 통해 만나는 여름빛깔>을 성황리에 마쳤다.

동지 민속행사는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행사로 이러한 민속행사들을 통해 사라져가는 우리의 민속을 되새겨 온 가족이 함께 어우러져 즐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

동지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동지팔죽일 것이다. 팔을 고아 죽을 만들고 여기에 찹쌀로 새알심을 만들어 넣고 끓인 팔죽은 악귀를 쫓아내는 축귀(逐鬼)의 기능과 함께 추운 겨울 서민들의 속을 든든하게 해주었던 시절음식이다. 그러나 이제 팔죽은 죽 전문점에서나 사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되어버렸다. 박물관에서는 바쁜 현대 사회 속에서 점차 잊혀져가는 동지팔죽의 의미를 되새겨 정성스레 팔죽을 끓여 시민들과 함께 나눠 먹으며 액운을 쫓는 행사를 진행한다.

또한 동지에는 동지팔죽과 더불어 책력(冊曆, 관

상감에서 동지에 제작하여 배포하는 지금의 달력, 주기년의 이름, 달과 날, 24절기와 기상 변화까지 표시됨)을 선물하던 풍속이 전한다. 옛날 궁중에서는 관상감에서 만들어 올린 달력을 관원들에게 나누어주는데, 관원들은 이를 다시 친지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러한 풍속은 여름(단오)에 부채를 주고받는 풍속과 아울러 '하선동력(夏扇冬曆)'이라 하였다. 책력은 농경사회에서 생업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요긴하게 사용되었던 생활의 지침서라고 할 수 있다. 이제 더 이상 전통 책력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그 전통을 이어 한지와 끈을 이용한 새해 달력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밖에도 가을걷이 짚을 이용한 복조리 만들기, 동지부적 쓰기, 달고나 먹기 등 다양한 체험들이 준비되어 있다. 동지 민속행사는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 별도의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다. 겨울방학이 시작되는 동짓날, 추위를 녹여 줄 다양한 민속행사들이 기다리고 있는 시립박물관을 가족과 함께 방문해 보는 것은 어떨까?

전시교육과 이현아

2009 박물관 송년음악회

'안녕~2009, 안녕! 2010'



한 해의 끝자락이자 2010년 새해 첫 날을 맞는 설렘으로 사랑하는 가족, 친구, 연인들과 함께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한 송년콘서트 '안녕~2009, 안녕! 2010'이 박물관 석남홀에서 마련된다. 올해 처음 열리는 박물관 송년콘서트이다. 2009년 마지막 밤과 2010년 새해 첫 날을 시민들과 함께 다양한 음악과 스크린을 통해 보신각의 타종소리를 들으면



서 한 해의 마무리와 새해의 각오를 다지는 의미 있는 공연이 될 것이다. 그리고 송년콘서트에는 특별한 이벤트 '미래로 보내는 <소망엽서>', '소망을 담은 <풍선날리기>'가 진행된다.

이번 공연은 오는 12월 31일(목) 밤 10시 30분부터 시작되며, 리여석 기타오케스트라, 뮤지컬 갈라쇼 TOP, 그리고 i-신포니에타의 공연을 통해 지는 해와 다가올 새해를 맞이하는 색다른 감동의 공연이 될 것이다. 공연은 3부로 나누어지며, 1부 공연은 '리여석 기타오케스트라'의 감미롭고 우아한 기타선율로 스티븐 포스터 <스와니강>, 아르헨티나 탱고 <라쿰파르시타> 등 주옥같은 곡을 들려줄 것이다. 1부 공연 후 특별이벤트 '미래로 보내는 <소망엽서>'를 작성하고, 1년 후 2010년 12월에 받을

수 있는 주소를 기재하여 제출하면 박물관에서 엽서를 발송해 준다.

2부 공연은 역량 있는 현직 뮤지컬 배우들로 구성된 'TOP' 공연이다. 유명한 뮤지컬 작품의 하이라이트 부분만 모아 즐기는 멋진 공연이 될 것이다. 2부 공연 후 휴식 시간을 이용하여 '소망을 담은 <풍선날리기>'에 매달 소원지를 작성한다.

3부 공연은 인천의 대표 현악 앙상블 'i-신포니에타' 공연이다. 공연 중 스크린을 통해 생중계되는 제야의 종소리를 들으며, 연주자와 시민들이 함께 새해맞이 카운트다운을 외치며 공연은 계속 진행된다. 오펜바흐 <하늘 아래 두 영혼>, 요한스트라우스 2세 <빈 숲 속의 이야기>, 현제명 <희망의 나라로> 등으로 i-신포니에타가 박물관 송년콘서트의 대미를 장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공연이 끝난 후 관람객 전원이 미리 작성한 소망지를 풍선에 묶어 박물관 우현마당에서 하늘 높이 날리는 피날레를 진행할 예정이다.

저물어가는 겨울밤, 박물관 송년콘서트 '안녕~2009, 안녕! 2010'을 통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새해를 맞는 즐거움을 나누어 보자.

전시교육과 김상연

故 이경성 초대박물관장 분향소 설치

지난 11월 27일 미국 뉴저지에서 타계하신 초대 인천시립박물관장 석남 이경성 선생을 추모하고 조문하기 위해 박물관에서는 11월 30일 월요일부터 12월 6일 일요일까지 일주일간 박물관 로비에 분향소를 설치, 운영하였다. 평소 인천시립박물관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계셨던 고인의 뜻을 받들어 유가족은 미국에서 인천으로 석남 선생의 유골을 운구하였다. 이에 박물관으로 안상수 인천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와 많은 미술문화계 인사 및 지인, 시민들의 조문이 이어졌다. 장례는 12월 4일 박물관에서 추모식을 거행한 후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모란공원 내에 석남 선생의 유골을 안치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인천시민 인문학강좌 운영

‘동아시아와 한국의 상생을 향하여’라는 주제로 2009년 9월 15일부터 12월 22일까지 인천시민 및 대학생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총 8강의 인문학강좌가 개설되었다.

시립박물관과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간 협력사업으로 진행되는 이번 강좌는 박물관 교육사업의 운영 노하우와 인문학연구진의 최근 연구성과가 결합되어 한층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첫 강좌 ‘근대 동아시아, 대립과 반목의 역사-러일전쟁을 중심으로’에서 마지막 강좌인 ‘한류를 통해 본 동아시아의 문화교류’까지 이번 강의를 통하여 인천시민들의 인문학적 소양과 가치를 증진시키고 지역사회와의 소통의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기타큐슈시립자연사역사박물관 외빈 방문

인천의 해외자매도시 중 하나인 일본 기타큐슈에서 박물관 특별전 및 인천세계도시축전 기타큐슈의 날(2009년 10월 10일)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기타큐슈시립자연사역사박물관 부관장을 비롯한 관계자 3명이 지난 10월 9일부터 10월 11일까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박물관을 내방하였다.

방문단은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박물관 전시와 축전 관람 외에 양 박물관의 향후 교류사업과 인천시립박물관 자원봉사단의 일본답사 지원 등에 대하여 박물관측과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검단선사박물관 전시유물도록 발간

2008년 11월 27일 개관한 검단선사박물관은 박물관 전시실에 선보이고 있는 주요유물들의 도판과 설명을 수록한 도록을 발간한다. 이번 도록은 박물관 전시유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발간하게 되었다. 도록의 내용은 검단지역에서 조사된 유적들을 각 시대별로 소개하였으며, 유적에서 발견된 유물들을 도판과 함께 유물설명을 실어 유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 도록을 통해 과거 검단지역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재구성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인천지하철역사 내 박물관 홍보부스 설치

인천광역시립박물관과 인천지하철공사 간 MOU 체결에 따라 시립박물관에서는 인천지하철 1호선 인천대입구역에 인천시내 박물관 및 관광명소, 시립박물관 기획특별전 등을 소개하는 홍보부스를 9월에 설치, 올 12월까지 운영중이다. 지하철과 연계하여 승객들이 손쉽게 찾아갈 수 있는 인천의 대표 박물관 및 관광명소를 대형 안내판을 이용하여 홍보하고 있다.

시립박물관뿐만 아니라 인근 문화기관과 관광지까지 홍보하여 문화공간 인천을 알리는 데 좋은 효과를 얻고 있다.



박물관 야외음악회 개최

박물관으로 떠나는 아주 특별한 음악여행, 2009 박물관 야외음악회가 9월 19일 토요일 박물관 우현마당에서 열렸다. 매년 9월 ‘가을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개최되는 박물관 야외음악회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과 춤이 어우러져 깊어가는 가을밤의 정취를 더욱 만끽할 수 있는 공연이다.

올해는 소리아&비보이, 여행스케치, 바람에 오르다 등 퓨전국악, 대중가요, 재즈로 서로 색깔이 다른 세 팀의 공연이 진행되었다. 600여명의 관람객들이 참여하여 성황리에 마친 이번 음악회는 중간 중간 커피와 와인타임을 가져 특별히 참여자들의 오감을 만족시킨 공연으로 호평 받았다.



근대산업도자기 기획전특별전 개막

2009년 박물관 세 번째 기획전특별전 <그릇, 근대를 담다-근대산업도자기> 전시회가 지난 11월 10일 개막하였다. 19세기 말 20세기 중반 근대기 산업도자기를 새롭게 조명하기 위해 기획된 이번 전시는 분원의 민영화와 한국근대도자기의 시작, 대한제국기의 왕실 도자기, 일제강점기의 민간 도자기, 근대산업도자기 회사의 설립, 전통과 현대를 잇는 근대도자기로 구성되었다.

전시회는 2010년 1월 31일까지 계속되며, 이 기간 동안 중·고등학생 단체관람 시 영화상영도 함께 하는 이벤트가 마련되었다. 겨울방학을 맞아서는 가족대상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어서 많은 가족단위 관람객들의 호응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시도록을 발간하여 전시회의 내용을 간직하려는 시민 누구나 구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특별전시회는 우리나라 도자기 역사에서 근대기의 도자기가 차지하는 위치를 가늠하고 현대 우리 도자기에 대한 이해에도 한걸음 나아가는 기회가 될 것이다.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 실시

박물관에서는 인천시 공무원의 인천에 대한 역사·문화적 소양 증진과 업무능력 향상 도모를 위하여 2009년도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 ‘Enjoy your 인천’을 계획, 운영하였다.

인천관내 시군구, 사업소 소속 공무원 중 선착순 접수를 받아 15명이 참석하였다. 참석자는 11월 21일 하루 동안 시립박물관 및 근대개항장 일대를 답사하는 일정을 소화하였다. 프로그램은 개항장 일대 답사를 비롯하여 개항장 관련 역사교육과 시립박물관, 근대건축전시관 관람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우리 고장 인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인천시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켜 관내 공무원의 자부심을 고양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전시 · 행사 · 교육 일정

| 기획특별전 <그릇, 근대를 담다 - 근대산업도자기> |

기간 2009년 11월 10일~2010년 1월 31일
장소 박물관 2층 기획전시실
내용 19세기 말 20세기 중반 근대산업도자기 전시회

| 박물관으로 떠나는 음악여행 |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 오후 4~5시/박물관 1층 석남홀/홈페이지
선착순 접수
12월 13일 강력한 일렉 비트의 쾌감 '페어리스' (페어리스)
12월 27일 '리마인드'와 떠나는 아카펠라 여행(리마인드)

| 2009 박물관 송년음악회 |

일시 2009년 12월 31일 오후 10시 30분~12시 30분
장소 박물관 1층 석남홀
내용 기타오케스트라, 뮤지컬 갈라쇼, 클래식 공연 등 실시

| 2010 박물관 정월대보름 민속행사 |

일시 2009년 2월 28일
장소 박물관 우현마당
내용 2010 박물관 정월대보름 민속행사로 달집태우기, 각종 민속
놀이 체험 등 프로그램 운영

| 특별전 연계 가족 프로그램 <그릇, 그림을 담다> |

기간 2010년 1월 9일~31일(토,일 총 8회) 오전 10시~12시 30분
홈페이지 선착순 접수
장소 박물관 3층 해넘이방
내용 핸드프린팅을 하거나 전사지를 붙여 도자기를 꾸미는 체험

| 박물관 시민강좌 |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오후 2~5시/박물관 1층 석남홀/선착순 입장
12월 5일 피카소와 마티스
1월 9일 미실과 화랑세기
2월 6일 설화를 보면 역사가 보인다?

| 우리 가족 박물관 가는 날 |

매월 넷째 주 토요일 오전 10~12시/박물관 3층 해넘이방/홈페이지
선착순 접수
12월 26일 호랑이띠해 벽시계 만들기

| 인천시민 인문학강좌 |

매월 격주 화요일 오후 4~6시/박물관 1층 석남홀/선착순 입장
12월 8일 동아시아 세계에 대한 이해 - 공통성과 다양성
12월 22일 '한류'를 통해 본 동아시아의 문화교류

마음 창에 시선 담기



서울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 종루

그냥 얻어지는 것은 없다

종(鍾)의 몸통에는
시주한 이들의 이름들이 빼곡히 채워져 있다.

공덕(功德)을 한 사람들의 가세(家勢)가
공명(公名) 되어서
종소리의 울림마냥 멀리 퍼져나가
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기를 바라는 기원일 것이다.

종소리는 무서움에 떠는 포뢰의 울음소리라고 한다.

종소리를 들을 때마다
공포 속에 떨면서 울어대는
포뢰*의 고통스런 표정이 떠올라
크게 울리지 않았으면 하고
내심 기원을 해 본다.

*포뢰(蒲牢): 상상의 동물. 용의 셋째 아들로 겁이 많아 놀라면 큰 소리로 울부짖곤 했는데 그 소리가
엄청 크고 아름다웠다고 한다.

박물관 자원봉사단 조택환

창간일 2009년 3월 1일
발간일 2009년 12월 13일
발행인 인천광역시립박물관장 김용길
기획·편집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전시교육과
자원봉사단 간행물편집팀
제호 근정 이태용
디자인·인쇄 (주)우량

인천광역시립박물관
Incheon Metropolitan City Museum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525번지 | Tel 032 440 6750 | <http://museum.incheon.go.kr>

Modern Industrial Ceramics

인천광역시립박물관 기획특별전

그릇, 근대를 담다

근대산업도자기

2009.11.10 ▶ 2010.1.31

인천광역시립박물관 기획전시실

 인천광역시립박물관
Incheon Metropolitan City Museum

